



1 스마트그린 산단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3 반월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성공을 위한 연대협력 선언식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관계기관과 함께 10월 27일 반월산단 내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연대협력 선언식과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창원국가산단에서 발표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산단에 디지털·그린뉴딜을 융합하고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7개에서 오는 2025년까지 1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스마트그린산단 참여 기관들이 참석했고, 콘퍼런스에서는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0대 핵심사업은 ▲ 혁신데이터센터 ▲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 ▲ 스마트제조 고급인재 육성 ▲ 스마트 편의시설 구축 ▲ 통합관제센터 ▲ 물류자원 공유플랫폼 ▲ 스마트제조혁신기반구축(소부장실증화지원)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 에너지 자급 인프라 구축이다.

‘스마트그린산단 연대협력 선언식’을 계기로 각 주관 기관은 사업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 전국 산단으로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사항(표준화·보안성 강화 등)의 발굴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디지털 세션과 그린 세션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데이터·AI 적용 방안을, 그린 세션에서는 친환경·에너지 효율화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산단의 데이터 수집·저장·분석·통합을 아우르는 디지털 허브 기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혁신데이터센터가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에너지·물류 플랫폼, 통합관제센터 등의 연계에도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김정환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생산 집적지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산단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스마트그린산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해법으로 ‘스마트’는 산단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린’은 산단의 자급 자족 마이크로그리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스마트와 그린 이 결합한 산업 단지가 친환경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인재들이 모여들어 기업과 사람이 함께 발전을 거듭하는 ‘혁신성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2



3